

# <<영혼론>>

## 1 영혼론 탐구의 중요성과 난점

(A1 402a1-22)

### I 원전(Text)

1. 인식은 어느 것이건 좋고(kalov")<sup>1)</sup> 가치(timivo")<sup>2)</sup>있지만, 정확성의 기준에서 또는 더 뛰어나고 더 바람직하다는 기준에 비춰보면 어떤 인식은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하겠다. 이 두 기준에 따르면 영혼에 관한 탐구는 모든 학문의 탐구에서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것이 합당하다. 402a1-4

2. 영혼에 관한 인식은 모든 종류의 진리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본성에 관한 인식에 큰 공헌을 한다고 보겠는데, 그 이유는 영혼이 어떤 점에서는 생명체(zw'/on)<sup>3)</sup>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402a4-7

3. 영혼에 관한 연구는 먼저 영혼의 본성 즉 실체를 탐구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 지닌 속성들을 탐구하고 인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어떤 속성은 영혼이 본래 지닌 고유한 속성이라고 보고, 어떤 속성은 생명체가 지닌 속성이지만 영혼에 의존해 있어서 부차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다. 402a7-10

4. 그런데 영혼에 대해 어떤 확실한 인식을 얻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다. 실제로 이 탐구에서 제기되는 공통된 물음은 다른 영역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실체(ousiva) 즉 본질(to; tiv ejsti)에 관한 물음이다. 우리는 모든 대상들이 가진 본질을 알려고 한다. 그런데 각 대상들에 적용이 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과생된 속성들에 관해 추론하는 논증과 같은 것이다. 이 때 우리가 탐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그와 같은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렇지만 만약 본질을 탐구하는 그러한 하나의 공통된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취하는 탐구는 한층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대상들에 적용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논증이 되었든, 분류가 되었든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이 되었든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해도, 어떤 것들을 출발점으로 놓고 탐구를 시작할지 여전히 많은 난제와 문제점이 생긴다. 그 이유는 탐구 대상들이 다르면 그 출발점도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학적 대상과 표면에 대한 것들이 그렇다. 402a10-22

### II. 주요 개념(sensus)

영혼론 탐구의 중요성과 영혼론에서 탐구할 것들, 그리고 영혼론 탐구에 따른 어려운 점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인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정확성'과 '좋음 및 바람직함'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영혼을 대상으로 한 인식은 가장 앞선 자리에 놓는다.

1) '아름다운', '멋진', '우아한' 뜻을 가진 형용사이다.

2) '가치 있는', '존경할 만한' 뜻을 가진 형용사이다.

3) 보통 '동물'을 가리키지만, 생명을 가진 것들에 대한 영혼의 탐구라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생명체'이다.

‘영혼’은 생명체의 원리로서, 영혼의 탐구는 참된 진리와 본성을 아는데 큰 공헌을 한다. 물론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인식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영혼에게도 본성이 있고, 그 본성에 의존해서 있는 속성들이 있다. 따라서 영혼론의 탐구에서 우선 영혼이 본래 지닌 고유한 속성(본성, oujsiva)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는 영혼의 본성에 부수적으로 의존하는 속성(우연적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 III. 세부 논의(disputatio)

1. ‘존재로서의 존재’(Being as being)에 관한 탐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탐구대상이다. ‘존재로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에 구체성을 띠고 존재하는 대상들이고, 그 각각의 대상들이 공통으로 지닌 가장 보편적 특징은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형이상학을 존재에 관한 탐구에서 가장 넓은 일반성을 지닌 보편학이라고 부른다.

이런 보편과 특수 관계의 살피려는 인식의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탐구 방향으로서, 탐구대상의 일반성을 먼저 거론하고 이어서 거기에 포함된 낱말의 대상들에 대해서 구체성을 검토한다. 영혼론의 탐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식(ei[dhsi])은 모두 좋고(kalov) 가치있는(timivo)” 것들이다. 여기서 인식은 이론학이다. ‘좋음’(kalov)의 원래 의미는 ‘아름다운’이다. 이것은 실천학과 ‘격’이 다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실천학은 어떤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있고, 실천학이 계획한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이론학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좋음’을 가진 학이다.

그리고 좋은 것은 일정한 관점에서 보면 ‘가치있는’ 것이다. 예컨대 좋은 말(馬)은 달리기를 잘한다는 관점에서 ‘가치’ 있다. 이런 경우는 수단의 관점에서 ‘가치’를 매긴다. 또 좋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이 가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분류의 기준에 따르면 이론학은 실천학에 비해 더 ‘좋고 가치 있는’ 학문이다.

인식의 두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정확성’(ajkriivbeia)과 ‘뛰어남’(beltivwn)과 바람직함’(qaumavsvio)이다. 이 기준들에 따라 학문은 좋음에서도 차이가 있고 가치에서 차이가 난다. 이 기준들은 학문의 대상과 그 대상을 다루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같은 영역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더 넓은 것이 있고 좁은 것이 있는데, 예컨대 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집의 일부인 기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 집 전체에 대한 인식은 더 뛰어나고 더 바람직하다. 대상이 같은 경우 그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세밀한 정보나 확실한 정보를 가진 경우 더 정확하다.

2-3. 인식은 일반적으로 진리의 파악에 있고, 어떤 유형의 인식이든 인식은 생명체의 활동이다. 영혼은 생명체의 원리(ajrchv)이므로, 영혼의 탐구는 온갖 종류의 진리 탐구에서 근본이 된다.

원리(原理)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아르케’는 출발점이다. 출발점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인식의 범위와 체계도 달라진다. 그에 따라 격의 차이가 생기고, 소중함의 정도에서도 등급이 생긴다.

본질과 속성의 구별은 영혼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영혼의 실체 즉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본질에 부수적으로 속하는 속성의 탐구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4.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은 우선 탐구의 난해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영혼론에서 다

루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고 각 문제들을 자세하게 검토한다.

- 1) 영혼과 신체의 관계
- 2) 영혼을 구성하는 요소들
- 3) 영혼의 각 요소들 간의 관계

모든 생명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먼저 탐구하고 점차 까다로운 기능의 순서로 간다. ①영양섭취 ②감각 ③이성의 순서로 탐구한다. 즉 생명체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기능으로부터 우월한 기능을 가진 쪽으로 탐구가 진행된다. 따라서 탐구의 순서는 탐구방법 못지않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영혼론 탐구에는 어떤 방법이 적합한가? 최고의 인식에 속하는 영혼론을 탐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적합한가? 인식의 대상이 영혼이거나 또는 그 외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하건 인식에 있어서 공통된 물음은 ‘그것은 무엇인가’이다. 영혼론에서 ‘영혼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 영혼에 대한 정의가 정해지면 이 정의를 영혼이 가진 여러 속성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혼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지가 중요한 물음이 된다. 그와 더불어 영혼의 본질과 그 속성들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탐구상의 여러 방법을 논의한다. 방법 중에서 플라톤이 주로 언급하는 ‘분류’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비판의 표적이다. 그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음을 지적한다. 어떤 방법으로 탐구할 것인지가 결정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그것은 출발점, 즉 정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탐구할 것인지 대상에 따라 출발점도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 2 영혼론의 제문제

(A1 402a23-403a2)

### I 원전(Text)

1.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영혼이 어떤 유(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체성(*to tivde ti*) 즉 본질(*ousiva*), 질(*poiovn*), 양(*posovn*) 또는 그 외의 범주로서 분류한 것들이다. 나아가 잠재적인 것(*ejn dunavmei*)인지 아니면 현실태(*ejntelevceia*)로 있는 어떤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런 물음들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또한 영혼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요소도 갖고 있지 않은지를 탐구해야 한다. 그리고 영혼 전체가 동일한 성질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 성질이 아닌지를 탐구해야 한다. 동일한 성질로 되어 있지 않다면 종에서 다른지 아니면 유에서 다른지를 탐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영혼에 관해 탐구한 사람들은 오로지 사람에 대해서만 다루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에 관해서 예를 들어 ‘동물’(zw'on)의 경우처럼 단 하나의 정의가 있는가, 라는 물음을 흘려버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니면 각각의 종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가 있는가를 탐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말, 개, 사람, 신이 각각 별도의 정의를 갖는가 하는 물음이다. 그래서 결국 보편으로서의 ‘동물’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인지, 아니면 나중의 것(u{steron)인가, 라는 물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통적인 것을 술어로 서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402a23-402b9

2. 게다가 영혼은 여러 종류가 아니라, 여러 요소(movria)로 된 한 영혼이라면, 우리가 탐구하는 순서에서 먼저 영혼을 전체로서 다루어야 할지 아니면 각 구성요소들을 먼저 다루어야 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본래 서로 다른지를 구별하는 일은 어렵다. 그리고 구성요소를 먼저 다루지 않으면 영혼의 활동 기능들(e[rga])을 먼저 탐구할 것인가, 하는 물음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영혼의 요소로서 ‘사고를 담당하는 주체’와 이 주체의 활동기능인 ‘사고’, 요소로서 ‘감각하는 주체’와 이 주체의 기능으로서 ‘감각’을 구별하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것들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만일 먼저 탐구할 대상이 활동기능이라면, 두 대립되는 것들 즉 기능과 그 대상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탐구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감각과 감각대상, 지적 기능과 지적 기능의 대상 중 어느 것을 먼저 탐구하는가?

402b9-16

3. 확실해 보이는 것은 실체들이 가진 우연적인 속성들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실체의 본질(그것은 무엇인가)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수학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알기 위해서는 직선은 무엇이고, 곡선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 또는 선은 무엇이고 면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반대로 속성을 아는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우리는 사실 경험에 의존해서 속성들에 관해, 전 부이건 대부분의 경우이건, 어떤 것을 얻게 되고(ajpodidovnai), 그럴 때 실체에 관해 가장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논증에서 정의는 출발점이므로 속성에 관해 알 수 없거나 속성에 대해 짐작하기 어려운 정의는 분명히 온통 변증론적이며 내용이 없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402b16-403a2

## II 주요 개념

범주(kathgoriva)는 실체범주와 속성범주로 나뉜다. 실체는 문법상의 주어에 해당되고 속성범주는 문법상 술어에 해당된다. 탐구대상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실체에 관한 것인지, 속성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물을 필요가 있다. 영혼론의 경우 역시 영혼의 실체와 영혼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적인 것(ejn duvnamei)과 현실태(ejntelevceia)는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영혼의 기능과 기능의 활동에 따라 결과를 갖는다. 인식을 발휘할 능력이나 기능은 잠재적이지만 기능의 발휘에 따른 인식의 결과는 현실태이다.

영혼의 구성요소(movrion)는 보통 인식하는 기능을 가진 ‘지성’, ‘감각’ 및 ‘섭생’ 등이 다.

동일성(oJmoeidhv)은 구성요소들 또는 영혼의 기능들이 동일한 일을 하는지 아닌지를 묻는다.

활동영혼의 구성요소들 즉 지성, 감각 또는 섭생능력이 발휘하는 기능을 활동기능(e[rga])이라고 한다. 지성의 기능은 대상을 지적인 판단 또는 인식하는 기능이다.

활동기능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대상들을 갖고 있다. 각각의 기능을 먼저 탐구할 수도 있고 각 기능들에 적합한 대상들을 먼저 탐구할 수도 있다.

## III 세부 논의

영혼론 탐구에 따른 제문제들을 정리해 놓았다.

(1) 영혼의 실체(tovde ti, oujsiva)는 무엇이고, 그 속성들(a[llh kagtegoriva)은 무엇인가?

- (2) 영혼은 잠세태(dunavmi")인가, 현실태(ejntelevenceia)인가?
- (3) 영혼은 세부 영역으로 나눌 수(meristhv) 있는가, 즉 부분을 가지는가?
- (4) 영혼은 동일한 성질을(oJmoeidhv") 갖고 있는가?
- (5) 동일하지 않다면, 중(ei[do")에서 구별되는가? 유(gevno")에서 구별되는가?
- (6) 영혼은 하나의 전체(o{lh)로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기관들, movria)로 구성되어 있는가?
- (7) 여러 기관들(movria)로 되어 있다면, 각각의 기관들이 맡은 기능(e[rga)은 무엇인가?
- (8) 각 기관들이 다루는 대상들은(ajntikeivmena) 무엇인가?

1. (1) 영혼은 어떤 유(geno")에 속하는가? 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로서 실체범주와 속성범주로 나뉜다. 실체범주에는 소위 제1실체인 개체와 제2실체인 본질이 포함된다. 여기서 제1실체와 제2실체를 모두 사용하였다. 개체(tovde ti)가 그대로 본질(ousia)은 아니지만, 개체를 떠난 본질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 두 관계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긴장 관계이기도 하다. 영혼의 실체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생명을 가진 것들 모두에 해당된다. 따라서 영혼의 실체에 대한 물음은, '생명을 가진 것'의 실체, 또는 '동물'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되겠다.

(2) 영혼의 실체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 실체가 잠재적인 것인지 아니면 현실태로 있는 어떤 것인가를 따져 묻는다. 보편은 개체에 앞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플라톤에게는 형상 또는 이데아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보편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체들이다. 관점을 달리해서 보편을 단순히 개체로부터 추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자. 잠재적인 것과 현실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잠재적인 것은 현실태로 있는 개체보다 앞서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있는 어떤 것이 된다.

2. 영혼 안에는 잠재적인 것들로서 지성, 감각 또는 섭생능력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은 영혼의 구성요소로 본다. 그래서 (3)에서 영혼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럿인가 아니면 한 요소로 되어 있는지를 묻는다. 여러 요소로 된 하나의 영혼이라면, 영혼을 전체로서 다룰지 아니면 그 요소들을 먼저 다룰지 탐구의 순서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영혼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본래 어떻게 다른지를 식별하는 일은 쉽지 않다.

(4) 영혼들은 모두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가? (5) 동일한 성질이 아니라면 종에서 다른 것인가, 유에서 다른 것인가? 플라톤주의자들은 형상 또는 이데아는 별도로 존재하는 보편으로서 개체들이 존재하는 원인이다. 또한 영혼 그 자체의 존재도 각종 개체들의 영혼이 존재하도록 하는 원인이다. 이에 비해 자연철학자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개체일 뿐 보편은 실제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대 사상가들이 영혼에 대하여 오직 '사람'에 대해서만 다루었음을 지적하면서 '동물'(zw'on)을 유(gevno")의 한 예로 든다. 영혼의 정의를 위해서는 유로서 동물에 대한 정의가 가능한가, 아니면 동물에 속하는 각각의 종에 대해서 영혼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합당한가? 유로서 영혼을 받아들일 경우,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거나 각각의 종이 있어서 그 것에 대해 공통의 것이 될 것이다. 나중의 것(u{steron)은 술어처럼 다룰 수 있는데, 보편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에서 술어로서 '사람'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라는 개체의 존재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그 개체들에 공통된 어떤 특징을 추상해 낸 것이 곧 보편으로서의 '사람'이다.

(6)은 영혼을 하나의 전체(o{lh)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기관들, movria)로 구성되

어 있는지를 묻는다. (7)에서는 영혼이 여러 부분들(movria)로 되어 있다면, 그것들의 기능(e[rga])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8)은 각 기능들에 적합한 대상들을 찾는 문제이다. 영혼을 구성하는 각종 기관들과 그것들이 담당한 기능들(e[rga])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탐구할 것인가? 감각이 영혼의 부분을 이루는 구성요소라면 감각의 기능은 곧 ‘보는 것’이다. 이 기능에 적합한 대상들도 있게 마련이다. 기능과 그의 대상이 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탐구하는가?

3. 그리고 다시 한 번 본질과 속성의 관계의 상호 협력관계를 지적한다.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속성 전체를 장악하는 본질의 파악이 우선권을 갖는다. 반대로 속성을 아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속성에 대한 파악은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변증론적 인식에 지나지 않으며 내용이 빠진 인식이다.

논리적(logikw")인 것과 변증론적(dialectikw")인 것의 구별한다. 논리적인 관계는 본질을 알면 속성의 얹에 도움이 되고, 속성을 알게 되면 또 본질을 더 잘 알도록 도움을 주는 관계이다. 그런데 변증론적 문맥은 본질을 알더라도 속성을 아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본질을 알기는 하지만, 보편으로서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이 보편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들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즉 보편이 적용되는 개체들에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되겠다.

(403a3-27)

#### I 원전(Text)

1. 영혼의 활동양태들(pavqh)은 신체를 가진 영혼들 모두에게 공통된(koinav) 것인지 아니면 영혼 그 자체에만 고유한(i[dion]) 것인지 하는 까다로운 물음이 제기된다.

403a3-5

2. 이 물음은 반드시 파악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신체가 없이는 어느 것도 자극을 받거나 활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예들에는 화를 내는 것, 용기를 갖는 것, 열망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각을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영혼에 가장 고유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사고하는 것’(to; noei'n)으로 보인다. 만일 이것도 일종의 경험(fantasis)이거나 또는 경험을 통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라면 신체없이도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403a5-10

3. 어떤 능동적 활동이나 수동적 반응이 영혼에 고유한 것이면 그것은 신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영혼에 고유한 어떤 것이 아예 없다면 그러한 활동양태들(pavqh)들은 신체로부터 분리될 것일 수 없을 것이다. 곧은 성질을 가진 한에서 곧은 것(to; eujquv)은 여러 가지 많은 속성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곧은 것이 한 점에서 청동(靑銅)으로 된 구(球)에 접촉하는 경우가 그렇다. 분리된 것으로서 곧은 것은 그런 방식으로 구에 접촉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신체에 의존해 있다면 그 속성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403a10-16

403a10-16

4. 영혼의 속성들은 모두 신체에 의존해 있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충동, 온화, 두려움, 동정, 용기, 기쁨, 좋음 그리고 미움이 그런 예들에 해당된다. 이런 예들에서는 신체의 어떤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강렬하고 명

확하게 드러나는 속성임에도, 어떤 자극이나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 또 어떤 때에는 희미하고 미세한 자극으로도 그런 움직임은 느끼기도 한다. 그 때에는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체는 이미 화가 난 상태에 있다.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다. 외부에 어떤 두려움의 원인이 없는데도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다. 이와 같다고 할 때, 영혼의 속성들은 질료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정의는 예를 들어 “화를 낸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저러한 신체의(구성요소의 또는 잠재적인 것의) 움직임”이어야 한다.

403a16-27

## II 주요개념

활동양태(pavqh)는 실체의 다양한 모습이다. 즉 영혼이라는 실체가 활동함에 따라 드러나는 다양한 면모 또는 양태이다.

공통성과 고유성은 양태가 영혼과 신체가 공유하는 것이면 공통성이고, 그렇지 않고 영혼만이 가진 활동양태라면 그것은 영혼에만 속한 고유한 것이다.

영혼을 구성하는 활동기능 중 하나인 지성이 가진 고유성은 일반적으로 사고(to; noein)이다.

분리가능성은 영혼에 고유한 것이라면 신체와 무관하므로 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신체에 의존여부가 분리가능성의 기준이다.

## III 세부 논의

1. 영혼의 양태(pavqh) 또는 속성들은 플라톤이 생각하듯이 신체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과 신체가 함께 공통으로 가진 것인가? 고유성 여부는 영혼에서 일어나는 활동양태는 신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지를 묻는다.

2. 영혼에 고유한 속성이라면, 그 속성은 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 우리가 경험하는 활동양태들은 분명 신체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화를 내거나 용기를 얻거나 또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열망을 갖는 우리들의 다양한 활동들은 어느 것이든 신체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 중에서 영혼에 가장 고유한 것이어서 분리가 가능한 강력한 활동은 ‘생각’, 즉 ‘사고’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판타시아’이다. ‘판타시아’는 우리가 겪는 경험이다. 경험인 한에서는 ‘사고’도 신체라는 물질 덩어리가 없이는 일어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영혼에 고유한 ‘사고’마저도 신체에 의존하는 경험에 속해 있다면 영혼에 고유한 것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 영혼에 고유한 것을 신체로부터 떼어낼 수 있을지를 묻는 ‘분리가능성’을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

사고는 영혼에 고유한 활동이지만 신체를 필요로 한다. 반면 감각이나 그 외 다른 활동양태들은 영혼과 신체 모두를 포함한다. 그래서 지성(nouv)은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이지만, 그 외 다른 영혼의 능력들은 물질성을 가진 실체들이다. 영혼에 고유한 활동기능이 신체의 활동기능으로 보이기 쉽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영혼이 자신에게 고유한 속성들(pavqh)을 가졌다면, 영혼은 신체에서 분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의존해서 스스로 활동하는 것은 별도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영혼이 고유한 속성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체와 결합되어 있어서 신체로

부터 분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직선이 감각가능한 청동구(靑銅球)에 접촉하는 예로서 설명한다. 직선이 청동구에 접촉한다면, 직선은 물체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이렇게 접촉하는 경우의 직선은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 반면 감각가능한 물체에서 분리된 상태로 있는 ‘직선’은 추상적 선, 즉 수학적 선이다. 그러므로 이 수학적 ‘직선’은 감각가능한 청동구에 접촉할 수 없다고 하겠다.

4. 영혼의 양태들은 영혼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영혼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신체의 일정한 체질은 극단적인 감정발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영혼의 양태로서 우리가 겪는 감정들은 영혼뿐 아니라 신체에도 관계되어 있다고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예로 든 것들은 충동, 온화, 두려움, 동정심, 용기, 기쁨, 좋음 및 미움 등과 같은 인간의 감정들이다. 이들은 모두 신체에 의존해 있다. 어떤 경우의 감정들은 외부의 자극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 아주 미미한데도 아주 격렬하게 느끼는 감정들도 있다. 이 모든 경우들에서 신체가 없이는 활동양태인 감정들은 생기지 않는다.

우울증 등과 같이 신체상의 특이한 상태에 처한 사람은 예컨대 원인이 없는데도 매우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감정들은 틀림없이 신체안에 즉 물질안에 존재한다. 감정을 정의하는데 질료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를 정의할 때, 이러저러한 물질의 움직임으로 규정한다. 물질은 당시의 수준에서는 심장이 되는데, 화는 심장 주변의 이러저러한 움직임이다. 또는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이나 신체의 어떤 힘의 움직임으로 규정하면서 질료인을 필요로 하게 된다.

(403a27-403b19)

## I. 원전(Text)

1. 이런 점에서 영혼에 관한 탐구는 영혼 전체에 관한 것이건 우리가 지금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영혼이건 자연학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403a27-28

2. 자연학자와 변증론자는 이러한 속성들에 대하여 상반된 정의를 내린다. 예를 들어 ‘화는 무엇인가’에 대해 그들은 전혀 다르게 정의를 한다. 변증론자는 화를 정의하기를, 받은 고통에 대해 ‘그 고통을 되돌려주려는 욕구’ 또는 이와 같은 유형이라고 하고, 자연학자는 화를 ‘혈액과 열이 심장주변에서 끓어오름’이라고 정의한다. 이들 중 자연학자는 질료를 제시하고 변증론자는 본질 즉 정의를 제시한다. 이 정의는 사태(pravigma)에 관한 것으로서 물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앞서 묘사한 것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질료 안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변증론자는 집에 대한 정의를 ‘바람, 비, 햇빛을 막아주는 휴식처’라고 한다. 반면 자연학자는 집을 정의할 때 ‘돌, 벽돌, 목재’를 언급하며, 또 다른 정의는 질료안에 있는 형상으로서 목적을 취한다. 자연학자는 이들 중 어떤 것을 정의로 보는가? 본질적 정의를 알지 못하지만 질료에만 한정해서 말하는가, 아니면 본질적 정의에만 한정하는가? 이것도 아니면 두 요소를 모두 결합한 것인가? 두 요소가 결합한 하나의 정의로 본다면, 각각의 요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질료적 속성에 대해서, 사유에서만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료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연학자는 어떤 특정의 신체나 질료를 가진 모든 능동적 및 수동적 속성들을 탐구한다.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룬다. 이들은 일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서 예를 들어 목수나 의술자가 그런 사람들이다. 한편 (a) 분리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특정한 신체가 가진 속성이 아니라 추상에 의해 파악되는 것들로서 이런 것들은 수학자의 탐구대상이다. (b) 신체로부터 실제에서나 사유에서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제일 철학자의 탐구 몫이다.

403a29-403b16

3.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접어두고 원래 논의하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영혼의 속성은 생명체의 자연적 질료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우리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컨대 충동이나 화를 내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선이나 면과 같은 것이 아니다.

403b17-19

## II. 주요 개념

영혼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 질료, 형상 또는 작용과 목적 등에 주목해서 다루는 입장은 주로 자연학자들이다. 정의는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다. 그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변증론자들과 자연학자들의 차이는 대상이 가진 질료의 존재여부이다. 질료를 배제한 상태는 변증론자들의 정의이다. 즉 형상에 주목하는 입장이다.

수학자들과 형이상학자들도 질료가 배제된 대상들을 탐구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수학자들은 질료 안에 들어 있는 속성을 사유에 의해서 추상한 것이다. 반면 형이상학자들은 사유에 의해 추상한 것이 아니라 질료없이도 존재하는 독립된 존재로서의 형상이다.

요컨대 질료와 형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분류 뿐 아니라 본질을 정의하는데 두 가지 요소이자 핵심축이다.

## III. 주요 논의

1. 영혼이 활동함으로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은 영혼의 양태들이다. 이런 양태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바, 예컨대, “화를 낸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신체의(구성요소의 또는 잠재적인 것의) 움직임”으로 정의를 하게 된다. 인용한 문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설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어떤 것에 의해서>는 작용인이고, <어떤 것을 위해서>는 목적인, 그리고 <이러저러한 신체 또는 구성요소>는 질료인을 가리킨다. 영혼의 한 양태로서 ‘화’를 정의할 때 신체 즉 질료적인 요소가 빠질 수 없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한 탐구는 곧 자연학의 탐구대상이 된다.

2. 그런데, 변증론자들도 역시 영혼에 대해서 자신들이 딛고 있는 고유한 탐구영역과 자신들의 고유한 관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들도 그들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린다. 자연학자와 변증론자는 ‘화’에 대해 전혀 다르게 정의를 한다. (a) 변증론자는 ‘그 고통을 되돌려주려는 욕구’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자연학자는 화를 ‘혈액과 열이 심장주변에서 끓어오름’이라고 정의한다. ‘집’에 대한 정의에서도 변증론자는 언어적인 규정으로서 정의 또는 본질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질료적인 요소도 포함시켜서 ‘바람, 비, 햇빛’을 언급한다. 그래서 집은 ‘바람, 비, 햇빛을 막아주는 휴식처’이다.

반면 (b) 자연학자는 집을 구성하는 재료를 언급하거나 그것을 만든 사람 즉 작용인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연학자는 집의 목적에 주목하기도 한다. 자연학자들은 재료 즉 질료, 정의 또는 질료와 정의 두 요소가 결합한 것을 탐구대상을 삼을 수 있다. 두 요소가 결합했을 경우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c)자연학자와 비슷하게 대상을 다루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수나 의술(醫術)을 다루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어떤 대상이 가진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기술자들이다. 이들이 취하는 다양한 속성은 보통 우리에게 기술 또는 제작술에 해당된다. 자연학자들도 재료들이 가진 다양한 속성들에 주목하지만, 재료들의 본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술자들과 다르다고 하겠다. 물론 기술자들과 해서 재료들의 본성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 직업으로서 기술자이되 그가 재료들의 본성에 주목한다면 그는 곧 자연학자인 것이다.

한편 수학자들과 형이상학자들의 관점을 보자. (d)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리된 것으로서 즉 추상에 의해서 본질을 다루는 이들은 수학자이다. 사유에 의해서 분리가 가능하다. (e) 사유에서뿐 아니라 실제로 분리할 수 있는 본질을 대상으로 다루는 이들은 제1철학자, 즉 형이상학자들이다.

수학자들의 대상은 형상들이다. 이 형상은 물론 우리가 감각가능한 물체에 들어 있다. 그러나 수학자들이 그러한 형상들에 주목하여 탐구하더라도 그들의 정의에는 질료가 들어 있지 않다. 원, 직선 등은 질료 안에 존재하고 실제로도 질료를 가진 물체 안에서 분리해 낼 수 없다. 다만 질료적인 관점을 배제한 상태에서 형상들 즉 원이나 직선 등에 주목한다.

수학자들이 취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어떤 대상을 감각할 수 있다고 그 사물이 가진 색깔이나 무게 등 질적인 요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때, 그러한 질적인 요소는 이미 양적인 것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학자들은 사물의 질료적인 요소로부터 순전히 양적인 요소를 추상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형이상학자들은 질료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 있거나 질료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을 탐구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제시된 학문들은 각각 출발점이 다르다. 즉 각각의 학문이 본질적 정의로 내세운 것들이 다르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학문들도 여러 분야로 갈라진다.

3. 다시 본래 관심으로 삼았던 주제로 넘어간다. 지금까지 주요 관심대상은 영혼의 활동 양태들이었다. 좋아함, 공포 등은 신체에서 일어나는 감정들로서 생명을 가진 신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감정들 또는 속성들은 수학에서 다루는 선, 면 등과 다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수학에서 다루는 이런 대상들은 사유에 의해서만 질료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